

매출은 있는데 통장 잔액은 왜 다를까 — 소상공인 현금 입출금 대사 점검

발행 2026-09-23 · 최종 수정 2026-10-09 · 판본 2026-10-09
판 · 웹 본문 <https://gaon-lab.kr/research/cash-in-out-reconciliation-for-small-business>

독자의 질문

내 기록으로 계산한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다르면, 어떤 돈을 어떻게 나눠서 맞춰 봐야 할까요?

핵심 답

‘시작 잔액 + 실제 들어온 돈 - 실제 나간 돈’을 계산해 실제 종료 잔액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대사차이라 부릅니다. 이때 아직 입금·지급되지 않은 매출·비용, 대출·사업주 돈, 계좌 사이 이체를 나눠야 같은 돈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이 점검표는 내부 운영용 보조표이며 재무제표·세무장부·세액 판단·미래 현금 예측·자금 부족 판정이 아닙니다. 대사차

이가 0이어도 항목 분류까지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견 3가지

공식 안내

1.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현금·외상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도록 합니다. 이는 장부에 적는 날짜의 기준이며,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글의 대사표는 GAON-LAB의 내부 점검표이고 국세청이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GAON-LAB 계산

2. 계산상 종료 잔액 = 시작 잔액 + 외부 현금유입 - 외부 현금유출, 대사차이 = 실제 종료 잔액 - 계산상 종료 잔액입니다. 매출·비용 ‘발생액’을 그대로 넣지 않고 실제 수취·지급액만 넣으며, 대출·사업주 투입·인출·계좌 간 이체는 따로 나눕니다.

가상 사례

3. 설명용 가정에서 차입금 500만원이 들어오고
이자 20만원이 나가면, 영업 관련 순유입이 -50
만원이어도 전체 잔액은 430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금액의 입금·출금(각 50만원)이 함께 빠져
도 대사차이는 0이 되므로, 입금 합계와 출금 합
계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표 사례

**합성 사례 A — 판매는 기록됐지만 일부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 (단위: 만원)**

입력값 (가상)

시작 현금잔액 50

매출 발생액 500, 이번 기간 미수금 증가분
150

비용 발생액 400, 이번 기간 미지급금 증가분
100

실제 종료 현금잔액(통장 확인) 100

계산 → 결과 → 해석 (가상)

매출 현금수취액 = $500 - 150 = 350$

비용 현금지급액 = $400 - 100 = 300$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 = $50 + 350 - 300 = 100$

대사차이 = $100 - 100 = 0 \rightarrow$ 계산 가능

해석: 매출 발생액 500을 그대로 넣지 않고
미수금 증가분을 뺀 350만 넣은 것이 핵심입
니다. 환불·수수료·선수금·대출은 없다고 가
정했고,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은 이 표가 판
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와 사업용계좌 안내 본문
을 2026-10-08에 확인했고 2026-10-09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두 페이지 모두 발행·수정일은 표
시되지 않음). 모든 계산은 입력값에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 일치를 확인했으며, 합성 사례의 숫
자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회계기준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PDF는 웹 본문과 같은 판본(2026-10-09 판)입니다.

핵심 요약

- 판매를 기록한 시점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둘을 구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기본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간 시작 때 잔액에 그 기간 실제로 들어온 돈을 더하고 실제로 나간 돈을 뺀 값을, 지금 통장 잔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어떤 돈을 '들어온 돈·나간 돈'에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를 규칙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쓰는 '현금 입출금 대사표'는 사업자가 내부에서 점검하는 보조표이며, 재무제표·세무장부·세무신고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 유입이나 사업주가 넣은 개인 자금은 매출이 아니며, 대출원금 상환이나 사업주가 인출한 생활비는 이 글이 다루는 운영비용이 아닙니다 — 계산에서 반드시 분리합니다.
- 기록상 계산되는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의 차이(대사차이)가 0이 아니어도 곧바로 오류나 누락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0이라고 해서 각 항목의 분류까지 정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 국내 공식 자료에서 '소상공인은 대부분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계좌를 흔히 섞어 쓴다'는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계좌를 나눠 쓰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질문으로만 다룹니다.

연구 질문과 분석 범위

연구 질문

소상공인·1인사업자가 고객·거래처 정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 자료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고도, 내부 집계값만으로 매출·비용과 실제 입출금이 맞는지 대사해보려면 어떤 정의와 계산 규칙이 필요한가?

- 분석 단위: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분석기간(예: 이번 달, 최근 3개월) 단위
- 분석 대상: 대한민국 소상공인·1인사업자 중 자신의 내부 기록과 실제 통장 잔액을 스스로 점검하려는 사업자

- 계산의 중심: 공식 통계의 평균값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입력한 집계값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 모형 밖: 세액·과세표준 계산,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 대출 상환능력·지급능력·폐업위험 판정, 미래 현금흐름 예측은 이 계산 모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이 인용하는 공식 자료: 국세청의 간편장부 기록항목 안내, 국세청의 사업용계좌 의무 적용범위 안내 — 두 자료 모두 세무 신고 관련 자료이며, 이 글이 만드는 대사표 자체를 뒷받침하는 법정 회계기준 원문은 이 글의 핵심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 절)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범위 밖

이 글이 다루는 '현금 입출금 대사표'는 사업자가 내부 운영을 확인하는 보조표입니다. 아

래에 해당하는 것은 다루지 않으며,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 이 내부 점검표는 재무제표·세무장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손익계산서가 아니며, 이익이나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무신고서·세무장부가 아니며, 세액·과세표준·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계산하거나 판정하지 않습니다.
- 미래의 현금 상태를 예측하는 표가 아닙니다.
- 대출 상환능력을 판정하는 표가 아니며, 대출 가능 여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급능력이나 폐업 위험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업종의 평균적인 수치와 비교하지 않으며, 며칠·몇 달치 예비자금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 회계사·세무사·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매 기록과 통장 잔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 — 이 대사표의 역할

판매를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과 그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은 결제 후 며칠 뒤에 정산되고,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나중에 들어오며, 반대로 비용을 기록한 시점과 실제로 돈이 나가는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사업주가 넣은 개인 자금처럼 판매와 무관하게 통장 잔액을 늘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현금 입출금 대사표'는 이런 시점 차이와 항목 차이를 구분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한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절차입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조작적 정의

아래 표의 모든 용어는 이 글에서 사용하는 운영상 정의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이나 국내 회계기준이 공식적으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옮긴 것

이 아니며, 이 글의 계산 목적에 맞춰 GAON-LAB이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읽기 전에 두 말만 알아 두면 됩니다. '대사'는 내 기록과 통장 잔액처럼 서로 다른 두 숫자를 맞춰 보는 일이고, '이중계상'은 같은 돈을 두 번 세는 것입니다.

표 1. 조작적 정의(이 글에서 사용하는 운영상 정의)

개념 분석기간
이 글에서의 정의 대사할 시작일과 종료일
단위 일자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 범위의 시간적 경계
주의점 기간이 길수록 항목별 집계는 쉬워지지만 시점 차이는 더 섞여 보일 수 있음

개념 분석 범위
이 글에서의 정의 대사에 포함하는 계좌·보유현금의 목록
단위 계좌·현금 목록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외부/내부 유입·유출을 가르는 기준선
주의점 시작·종료 잔액은 반드시 같은 범위로 확인해야 함('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개념

시작 현금잔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시작 시점,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계좌·보유현금의 합계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의 출발값

주의점

일부 계좌만 확인되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범위를 한정함

개념 종료 현금잔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종료 시점, 동일한 분석 범위의 잔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차이 계산의 비교 대상(실제 종료 현금잔액)
주의점 시작잔액과 범위가 다르면 대사 자체가 불가능함

개념

외부 현금유입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 범위 밖에서 안으로 실제로 들어온 금액의
합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의 가산 항목

주의점

내부이체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음('내부이체 처
리' 절)

개념 외부 현금유출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 범위 안에서 밖으로 실제로 나간 금액의 합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의 차감 항목
주의점 동일

개념 내부이체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계좌·보유현금 사이의 이동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외부 유입·유출 합계에서 제외되는 항목
주의점 제거하지 못하면 계산 불완전으로 처리함('데이터 완전성 3단계' 절)

개념 매출 발생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중 판매·용역 제공으로 기록한 금액(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 포함)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참고값 —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에 직접 합산하지 않음
주의점 매출 발생액을 그대로 외부 현금유입에 넣으면 이중계상이 됨('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개념

매출 현금수취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중 실제로 입금된, 판매와 관련된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외부 현금유입 항목

주의점

가장 안전한 값은 실제 확인한 입금 합계. 모를 때는 매출 발생액에서 미수금의 기간 중 순증가(기말-기초)를 뺀 값으로 교차점검('매출 발생액과 실제 수취액 구분' 절)

개념 비용 발생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해 기록한 비용(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포함)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참고값 —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에 직접 합산하지 않음
주의점 비용 발생액을 그대로 외부 현금유출에 넣으면 이중계상이 됨('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개념 비용 현금지급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운영과 관련된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외부 현금유출 항목
주의점 가장 안전한 값은 실제 확인한 지급 합계. 모를 때는 비용 발생액에서 미지급금의 기간 중 순증가 (기말-기초)를 뺀 값으로 교차점검('비용 발생액 과 실제 지급액 구분' 절)

개념

미수금

이 글에서의 정의

매출 관련 채권 중 특정 시점(기초 또는 기말) 기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발생 시점과 수취 시점 차이를 설명하는 운영상 조정항목 — 기초·기말 두 시점의 값이 모두 있어야 이번 기간 순증가를 계산할 수 있음

주의점

회수 가능성을 이 글이 판정하지 않음. 대손·환불·선수금이 섞이면 순증가만으로는 추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음('매출 발생액과 실제 수취액 구분' 절)

개념

미지급금

이 글에서의 정의

비용 관련 채무 중 특정 시점(기초 또는 기말) 기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차이를 설명하는 운영상 조정항목 — 기초·기말 두 시점의 값이 모두 있어야 이번 기간 순증가를 계산할 수 있음

주의점

선급비용·비현금 비용이 섞이면 순증가만으로는 추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음('비용 발생액과 실제 지급액 구분' 절)

개념

카드 미정산액

이 글에서의 정의

카드·플랫폼 판매 중 분석기간 종료 시점까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외부 현금유입에서 제외하는 항목('카드매출 정산 처리' 절)

주의점

정산일은 사업자·결제사마다 달라 고정 일수를 가정하지 않음

개념 차입금 유입
이 글에서의 정의 대출 등 자금조달로 들어온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매출과 분리하는 외부 현금유입 항목
주의점 매출로 분류하지 않음('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개념 대출원금 상환
이 글에서의 정의 대출 원금을 갚느라 나간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운영비용과 분리하는 외부 현금유출 항목
주의점 운영비용으로 분류하지 않음('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개념 이자 지급
이 글에서의 정의 대출 이자로 나간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원금 상환과 분리해 표시하는 외부 현금유출 항목
주의점 원금과 섞어서 하나의 금액으로만 기록하면 나중에 구분하기 어려움

개념 사업주 투입
이 글에서의 정의 사업주가 개인 자금을 사업 계좌·현금에 넣은 금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매출과 분리하는 외부 현금유입 항목
주의점 매출로 분류하지 않음('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개념 사업주 인출
이 글에서의 정의 사업주가 사업 계좌·현금에서 개인적으로 뺀 금액 (생활비 등)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운영비용과 분리하는 외부 현금유출 항목
주의점 운영비용으로 분류하지 않음('대출·사업주 투입· 인출의 분리' 절)

개념 세금 납부·환급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중 실제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금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별도 표시 가능한 외부 현금유출·유입 항목
주의점 세액이 맞는지 이 글이 판정하지 않음('부가세·세금 처리 경계' 절)

개념 미확인 조정액
이 글에서의 정의 출처나 분류를 확인하지 못한 차이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계산값(독자 확인 후 기재)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차이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쓰는 임시 항목
주의점 0이나 추정값으로 임의로 채우지 않음

개념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
이 글에서의 정의 시작 현금잔액에 외부 현금유입을 더하고 외부 현금유출을 뺀 값
단위 원(계산값)
입력 주체 독자가 계산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차이 계산의 기준값
주의점 '기본 대사식' 절 계산식 참고

개념 실제 종료 현금잔액
이 글에서의 정의 분석기간 종료 시점, 통장·현금을 직접 확인한 실제 잔액
단위 원(집계값)
입력 주체 독자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차이 계산의 비교값
주의점 종료 현금잔액과 동일한 개념, 대사차이 계산식에서는 이 이름으로 씀

개념 대사차이
이 글에서의 정의 실제 종료 현금잔액에서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을 뺀 값
단위 원(계산값)
입력 주체 독자가 계산
계산에서의 역할 기록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값
주의점 0이 아니어도 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0이어도 분류까지 정확하다고 보지 않음('대사차이의 부호와 해석' 절)

개념

계산 가능

이 글에서의 정의

시작·종료 잔액 범위가 같고, 내부이체를 제거할 수 있고, 외부 유입·유출을 분류할 수 있는 상태

단위

상태값

입력 주체

독자가 확인해 판정

계산에서의 역할

대사표 전체를 계산해 보여주는 조건

주의점

'데이터 완전성 3단계' 절 참고

개념 제한적 계산
이 글에서의 정의 대사 범위로 잡은 계좌의 시작·종료 잔액과 전체 입출금은 확인되지만, 범위 밖에 빠진 계좌·거래가 있음을 별도 확인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
단위 상태값
입력 주체 독자가 확인해 판정
계산에서의 역할 확인된 범위로 한정해 계산하는 조건
주의점 전체 사업 결과로 확대해 표현하지 않음('데이터 완전성 3단계' 절)

개념 계산 불완전
이 글에서의 정의 대사 범위로 잡은 계좌의 시작·종료 잔액이나 전체 입출금, 내부이체, 한 계좌 안의 개인·사업 거래 구분 중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단위 상태값
입력 주체 독자가 확인해 판정
계산에서의 역할 숫자를 만들지 않고 상태만 표시하는 조건
주의점 0원·0%·평균값으로 대체하지 않음('데이터 완전성 3단계' 절)

사용한 공식 원자료

이 글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 두 건만 핵심 근거로 사용합니다. 검토했으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글의 핵심 주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한 자료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밝힙니다.

표 2. 사용한 공식 원자료

기관
국세청

자료명

간편장부 안내(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
부기장의무 안내)

이 글에서 사용한 항목

간편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8개 항목(일자·계정과
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비용(원가관련 매
입 포함)·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매매)·비고),
현금·외상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
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는다는 기재 기준, 과세유
형별 수입금액 기재 방식(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과 부가가치세 구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2026.10.8. 본문을 다시 확인했으며 페이지 발행·
수정일은 표시되지 않음

사용할 수 없는 범위

장부는 거래 발생일 기준으로 적도록 안내하지만, 그 기록과 실제 입출금 시점의 차이를 메우는 방법이나 통장 잔액을 대사하는 방법은 이 자료가 설명하지 않음 — 그 시점 차이는 이 글의 운영상 관찰('판매 기록과 통장 잔액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 '매출 발생액과 실제 수취액 구분', '비용 발생액과 실제 지급액 구분' 절)로 별도 표시함. 이 페이지에는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 2024-19호, 2024.7.19.)가 표기돼 있으나 그 날짜는 고시일이지 웹페이지 발행일이 아니며, 웹페이지 본문 확인일은 2026.10.8.임. 대상자 기준은 이 글에서 쓰지 않음

기관

국세청

자료명

사업용계좌 관련 안내

이 글에서 사용한 항목

사업용계좌 사용·신고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된다는 적용범위(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용할 수 없는 범위

실제로 개인·사업계좌를 나눠 쓰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음 —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실제 사용 비율을 추론하지 않음('분석 전 데이터 완전성 점검' 절)

원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것

- 간편장부는 일자·계정과목·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증감(매매)·비고 8개 항목을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간편장부는 모든 사업자가 쓰는 장부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작성 대상자를 따로 정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보건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어느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으며, 대사 계산에도 쓰지 않습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간편장부 안내는 현금 또는 외상거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적도록 설명합니다. 이는 장부에 적는 날짜의 기준이며, 판매 대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같은 안내는 수입금액을 과세유형별로 다르게 적도록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적습니다. 안내에는 간편장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19호, 2024.7.19.)가 표기돼 있지만 그 날짜는 고시일이며 웹페이지 발행일이 아닙니다. 웹페이지 본문은 2026.10.8.에 다시 확인했고 페이지 발행·수정일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위 제도들은 모두 세무 신고 관련 제도이며, 이 글이 만드는 '현금 입출금 대사표'라는 이름이나 계산 방식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사표는 GAON-LAB의 내부 점검표이며 국세청이 정한 서식이나 승인한 양식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

이 글의 근거에서 제외한 자료

아래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검토했지만,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글의 핵심 계

산·주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 국제·국내 회계기준의 현금흐름표 관련 조문 원문 — 여러 경로로 접근을 시도했으나 조문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대사표가 그 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라고 표현하지 않으며, 모든 정의를 이 글만의 운영상 정의로 명시했습니다('조작적 정의' 절).
-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실태조사 수치 — 원출처는 확인했지만, 현금 기록 습관과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보고 방식의 사후 응답이라 이 글의 계산 모형과 직접 연결할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해 쓰지 않았습니다.
- 간편장부 '수입(매출)'의 부가세 처리는 과세유형별로 다르게 안내되어 있어(2026.10.8. 본문 확인) 이 글은 부가세 기준을 사용자가 고르는 선택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의 대사표 항목은 간편장부의 항목·형식과 같지 않고 국세청이 확인한 양식도 아니며, 과세유형

별로 실제 장부에 무엇을 적을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부가세·세금 처리 경계' 절 참고).

- 카드·플랫폼 정산에 걸리는 보편적인 영업일 수 — 결제사·플랫폼·휴일마다 달라 공식 기준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정 일수를 가정하지 않고 사용자 입력값만 씁니다('카드매출 정산 처리' 절).
- 소상공인이 실제로 개인·사업계좌를 얼마나 섞어 쓰는지에 대한 통계 — 확인된 자료가 없어, 계좌 혼용이 흔하다거나 일반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계좌를 나눠 쓰는지는 매번 직접 확인하는 질문으로만 다룹니다.

개인정보 없이 준비할 집계값

이 글의 계산에는 아래와 같은 집계값만 있으면 됩니다. 거래 하나하나의 원본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통장·카드 명세를 보고 직접 더하고 뺀 합계값입니다.

- 분석기간(시작일·종료일)
- 분석 범위에 포함할 계좌·보유현금 목록
- 시작·종료 시점의 계좌·보유현금 잔액 합계

- 분석기간 중 매출 발생액과 실제 현금수취액
(또는 둘의 차이인 미수금 증가분)
- 분석기간 중 비용 발생액과 실제 현금지급액
(또는 둘의 차이인 미지급금 증가분)
- 차입금 유입, 대출원금 상환, 이자 지급 각각의
합계
- 사업주 투입, 사업주 인출 각각의 합계
- 카드·플랫폼 판매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
의 합계
-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계좌 사이의 내부이체 합
계
- 세금 납부·환급이 있었다면 그 합계

보내거나 입력하지 말아야 할 자료

원본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과 진단·상담 CTA 어디에도 아래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GAON-LAB이나 외부 AI에 아래 자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 고객명·거래처명·직원명

- 계좌번호·카드번호
- 주문번호
- 세금계산서·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 계좌 거래내역 원본
-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
- 로그인 정보·공동인증서·비밀번호
- API 키
- 회계프로그램·POS·배달앱에서 내려받은 원본 파일(export)

거래처나 직원이 적은 사업은 위와 같은 원본이 아니라 집계값만 쓰더라도, '이번 달 인건비 합계'가 사실상 특정 직원 한 명의 급여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기간을 늘리거나 항목을 더 큰 범주로 합쳐서 특정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석 전 데이터 완전성 점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질문에 먼저 답해봅니다.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데

이더 완전성 3단계' 절의 세 단계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1. 분석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했는가?**
- 2. 분석 범위에 포함할 계좌·보유현금을 모두 나열할 수 있는가?**
- 3.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잔액을 같은 범위로 확인할 수 있는가?**
- 4.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계좌 사이의 내부이체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가?**
- 5.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나눠 쓰고 있는가?**
나눠 쓰지 않는다면,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 구분해 낼 수 있는가? 개인 계좌를 대사 범위에 넣으려면 그 계좌의 시작·종료 잔액과 기간 중 전체 입출금이 필요합니다.
- 6. 매출·비용 각각에 대해 발생액과 실제 입출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가?**
- 7. 카드·플랫폼 판매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알 수 있는가?**

기본 대사식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

시작 현금잔액 + 외부 현금유입 - 외부 현금유출

이 식은 회계기준이 정한 재무제표 산식이 아니라, 이 글이 쓰는 산술적인 대사식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절).

대사차이의 부호와 해석

대사차이

실제 종료 현금잔액 -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

- 대사차이 = 0: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잔액이 일치함
- 대사차이 > 0: 실제 잔액이 계산값보다 큼(기록에 없는 유입이 있었거나, 유출을 과대하게 기록했을 수 있음)
- 대사차이 < 0: 실제 잔액이 계산값보다 작음(기록에 없는 유출이 있었거나, 유입을 과대하게 기록했을 수 있음)

대사차이가 0이어도 각 항목의 분류가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분류한 두 항목이 우연히 서로 상쇄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와 항목별 분류가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함께 빠진 경우에도 대사차이는 0이 될 수 있습니다('대사차이가 0이어도 남는 한계' 절). 반대로 대사차이가 0이 아니어도 곧바로 오류·횡령·누락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범위 차이·시점 차이·미반영 수수료나 세금·현금거래·계좌 누락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부이체 처리

분석 범위에 포함된 계좌·보유현금 사이의 이동은 내부이체로 보고, 외부 현금유입·유출 합계 어디에도 넣지 않습니다. 사업 계좌에서 다른 사업 계좌로, 또는 사업 계좌에서 분석 범위에 포함한 현금 보관함으로 옮긴 돈은 사업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좌 하나만 분석 범위에 포함했다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결과를 '전체 사업 현금'이 아

니라 '그 계좌 범위의 대사 결과'로 한정해서
봐야 합니다.

내부이체에 수수료가 붙었다면 이체한 금액
은 내부이체로 제외하고, 수수료는 실제로 나
간 돈이므로 외부 현금유출로 따로 표시합니
다. 상대 계좌의 입금을 확인하지 못한 이체
는 한쪽만 상쇄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깁니
다.

매출 발생액과 실제 수취액 구분

판매를 기록한 금액(매출 발생액)과 실제로 입금
된 금액(매출 현금수취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부분은 미수금으로 남습니
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
는 실제 입금 합계를 매출 현금수취액으로 직접
쓰는 것입니다. 아래 식은 실제 입금 합계를 모
를 때 교차점검용으로만 씁니다.

매출 현금수취액(추정, 교차점검용)

매출 발생액 - (기말 미수금 - 기초 미수금)

기초는 분석기간을 시작하는 시점, 기말은 끝나는 시점입니다. 매출 발생액을 그대로 외부 현금유입에 넣으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수금까지 이미 들어온 것처럼 앞당겨 계산하는 시점 오분류(실제보다 크게 잡힘)가 됩니다 ('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이 추정식은 대손·매출 취소·환불·선수금이 없고, 이번 기간 회수액이 전부 이번 기간 또는 이전 기간 매출에서만 나온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예외가 있으면 실제 입금 합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정값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한 입금 합계를 우선 씁니다.

비용 발생액과 실제 지급액 구분

비용을 기록한 금액(비용 발생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비용 현금지급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실제 지급 합계를 직접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아래 식은 교차점검용입니다.

비용 현금지급액(추정, 교차점검용)

비용 발생액 - (기말 미지급금 - 기초 미지급금)

비용 발생액을 그대로 외부 현금유출에 넣으면, 아직 나가지 않은 미지급금까지 이미 나간 것처럼 앞당겨 계산하는 시점 오분류(실제보다 크게 잡힘)가 됩니다('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이 추정식은 선급비용·비현금비용(감가상각 등)·비용 취소·환급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예외가 있으면 실제 지급 합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정값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한 지급 합계를 우선 씁니다.

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 차입금 유입은 매출과 분리해 별도의 외부 현금유입 항목으로 둡니다.
- 대출원금 상환은 운영비용과 분리해 별도의 외부 현금유출 항목으로 두고, 이자 지급과도 따로 표시합니다.
- 사업주 투입은 매출과 분리해 별도의 외부 현금유입 항목으로 둡니다.
- 사업주 인출은 운영비용과 분리해 별도의 외부 현금유출 항목으로 둡니다.

이 네 항목을 매출·비용에 섞으면, 실제로는 자금조달이나 소유자 자금 이동으로 잔액이 늘고 준 것을 영업이 잘 되거나 나빠진 것으로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합성 사례 B).

카드매출 정산 처리

카드·플랫폼·배달앱 정산은 판매일과 입금일이 다를 수 있고, 정산에 걸리는 기간은 결제사·플랫폼·휴일·계약 조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보편적인 정산일 수를 가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씁니다.

- 판매일
- 판매 기록액
- 예상 정산일
- 실제 정산일
- 실제 입금액
- 수수료
- 미정산 잔액

판매 기록액 전체를 이미 입금된 현금유입으로 처리하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카드 미정

산액까지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부가세·세금 처리 경계

- 이 글은 세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의 대사표 안에서는 입력 금액의 기준(부가세 포함 또는 제외)을 분석기간 전체에 하나로 통일해, 월별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 이는 이 글이 대사표 집계에 쓰는 규칙이며, 세무 장부에 어떤 금액을 적을지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 실제 통장 잔액을 대사할 때는 통장에 실제로 오간 금액(부가세 포함 총액)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10만원이 입금됐다면 대사의 입금액은 110만원입니다. 이를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는 있어도, 부가세를 임의로 빼서 1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 세무 장부의 기재 방식은 별개입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2026.10.8. 본문 확인, 페이지 발행·수정일 미표시)는 현금·외상과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적도록 하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적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는 사용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작성 기준에 따르며, 이 글은 과세유형이나 세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장부 기재일(거래 발생일)과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잔액 대사는 실제 입출금일 기준이고 세무 장부는 거래 발생일 기준이므로, 두 표를 맞춰 볼 때는 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연결 항목을 남겨 두세요.
-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세무상 숫자를 추정해서 만들지 않고 미확인 조정액으로 남겨둡니다.
- 세금 납부·환급이 있었다면 별도의 현금유출·유입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이 필요하면 국세청 공식 신고자료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아래 열두 가지는 이 대사표를 계산할 때 특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계산 오류와 방지 규칙입니다. 이 오류들은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 이중계상 — 같은 경제적 사건을 두 번 합산하는 경우입니다. 예: 카드 판매 기록액과 실제 정산 입금액을 둘 다 현금유입에 더하는 경우, 비용 발생액과 그 비용의 실제 지급액을 둘 다 현금유출에 더하는 경우.
- 시점·범위 오분류(실제보다 크게 잡힘) — 아직 입금·지급되지 않은 금액 하나만 현금유입·유출로 넣는 경우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더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금 이동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당겨 반영하는 오류입니다. 예: 매출 발생액 전체를 현금수취액으로 그대로 넣는 경우.
- 누락 — 실제로 있었던 입출금을 집계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예: 현금거래나 분석 범위 밖 계좌의 거래를 넣지 않는 경우.
- 기준 불일치 —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 금액을 같은 항목에 섞어 쓰는 경우입니다. 예: 부가세 포함 금액과 제외 금액을 같은 표 안에

서 혼용하는 경우, 계좌 범위가 시작·종료 시점에 서로 다른 경우.

표 3. 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위험 대출 유입을 매출로 분류
잘못된 처리 예 차입금 500만원이 매출 합계에 섞여 들어감
방지 규칙 차입금 유입은 별도 항목으로만 입력('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발견 방법 매출·자금조달 입력란을 분리해 대조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분리 못 하면 계산 불완전

위험

대출원금 상환을 운영비용으로 분류

잘못된 처리 예

원금 상환액이 비용 합계에 섞여 들어감

방지 규칙

원금 상환은 별도 항목으로만 입력('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발견 방법

동일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동일

위험

사업주 투입을 매출로 분류

잘못된 처리 예

사업주가 넣은 개인 자금이 매출로 잡힘

방지 규칙

사업주 투입은 별도 항목('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발견 방법

동일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동일

위험 사업주 인출을 비용으로 분류
잘못된 처리 예 생활비 인출이 운영비용으로 잡힘
방지 규칙 사업주 인출은 별도 항목('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발견 방법 동일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동일

위험 내부이체를 외부 유입·유출에 각각 포함
잘못된 처리 예 A계좌→B계좌 이동이 유입·유출 합계를 부풀림
방지 규칙 분석 범위 내 이체는 외부 유입·유출 집계에서 제외('내부이체 처리' 절)
발견 방법 이체 표시 항목이 유입·유출 어느 쪽에도 합산되지 않았는지 대조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제거 불가 시 계산 불완전

위험

카드 판매액과 카드사 정산 입금을 모두 현금유입으로 포함

잘못된 처리 예

판매 기록액과 실제 정산 입금액을 둘 다 유입으로 집계

방지 규칙

정산 입금액만 현금유입으로 집계, 판매 기록액은 참고값('카드매출 정산 처리' 절)

발견 방법

판매일과 정산일이 다른 항목을 식별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구분 불가 시 미확인 조정액으로 표시

위험

비용 발생액과 실제 지급액을 모두 현금유출로 포함

잘못된 처리 예

매입 기록액과 실제 지급액을 둘 다 유출로 집계

방지 규칙

발생액은 참고값, 지급액만 집계('비용 발생액과 실제 지급액 구분' 절)

발견 방법

동일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동일

위험

취소·환불·부분취소 중복 차감

잘못된 처리 예

취소된 매출을 매출 기록에서도 빼고 환불 유출로도 또 뺀

방지 규칙

판매 기록의 정정과 실제 현금 이동을 구분해, 통장 대사에는 실제 입금·출금을 각각 한 번만 반영하고 정산에서 이미 차감된 환불액을 가상 출금으로 다시 넣지 않음('환불·취소 — 판매 기록의 정정과 실제 현금 이동 구분' 절 참고)

발견 방법

같은 거래가 판매 기록 정정과 환불 출금에 모두 반영됐는지, 정산명세의 차감액이 은행 출금과 겹쳐 집계됐는지 대조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대조 불가 시 미확인 조정액

위험

부가세 포함·제외 기준 혼용

잘못된 처리 예

어떤 달은 부가세 포함, 다른 달은 제외 금액을 입력

방지 규칙

분석기간 전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부가세·세금 처리 경계' 절)

발견 방법

월별 입력 기준의 일관성 확인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혼용 확인 시 계산 불완전

위험

현금거래·분석 범위 밖 계좌 누락

잘못된 처리 예

현금으로만 받은 매출을 집계에서 빠뜨림

방지 규칙

'계좌 밖 현금' 항목을 별도로 입력

발견 방법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확인 질문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범위 밖 거래가 있음을 알면 대사 범위를 확인된 계좌로 한정하고 별도 확인 항목으로 표시(제한적 계산). 누락 자체를 모르면 결과가 틀릴 수 있음

위험

수수료 차감 전 금액과 실제 정산액 혼용

잘못된 처리 예

차감 전 금액과 차감 후 금액을 각각 다른 항목에 넣어 수수료만큼 어긋남

방지 규칙

수수료를 별도 유출 항목으로 표시(또는 정산액 하나만 사용)

발견 방법

두 금액의 차이가 수수료와 일치하는지 대조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불일치 시 미확인 조정액

위험

시작·종료 잔액의 계좌 범위 불일치

잘못된 처리 예

시작잔액은 계좌 2개, 종료잔액은 계좌 3개 기준으로 입력

방지 규칙

시작·종료 잔액의 대상 범위를 먼저 고정('연구 질문과 분석 범위' 절)

발견 방법

범위 목록을 시작·종료 각각 확인

해결되지 않을 때 판정

불일치 시 계산 불완전

데이터 완전성 3단계

표 4. 데이터 완전성 3단계

상태 계산 가능	
조건 시작·종료 잔액 범위가 같고, 대상 계좌·보유현금 범위를 확인했으며, 내부이체를 제거할 수 있고, 외부 유입·유출을 분류할 수 있고, 남는 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	
상태 제한적 계산	
조건 대사 범위로 잡은 계좌의 시작·종료 잔액과 전체 입출금은 확인되지만 범위 밖에 빠진 계좌·현금거래가 있음을 표시할 수 있어, 확인된 범위로 결과를 한정해 계산할 수 있음(카드매출 일부 미정산이지만 금액을 별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상태

계산 불완전

조건

대사 범위로 잡은 계좌의 시작 또는 종료 잔액이
나 기간 중 전체 입출금을 모르거나, 분석 범위가
기간 중 바뀌었는데 조정할 수 없거나, 내부이체
를 제거할 수 없거나, 한 계좌 안의 개인·사업 거
래를 구분할 수 없고 그 영향 범위도 모르거나, 실
제 입출금과 기록의 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계산 불완전'을 0원이나 0%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업종 평균값으로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 임의로 오차 허용 범위를 정해 넘어가지 않습니다.
- 대사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횡령·누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한적 계산의 결과를 전체 사업의 결과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 계좌를 나눠 쓰는지 아닌지는 흔하다거나 일반적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매번 직접 확인하는 질문으로 둡니다.

합성 사례 A — 판매는 기록됐지만 일부가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경우

아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GAON-LAB이 만든 설명용 합성 사례이며, 실존 사업자·고객의 자료가 아니고 실제 상담 사례도 아닙니다. 공식 평균값도 아니며, 다른 사업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표 5. 합성 사례 A — 입력값과 계산

항목 시작 현금잔액
값(만원) 50
항목 매출 발생액
값(만원) 500
항목 이번 기간 미수금 증가분
값(만원) 150

항목

매출 현금수취액(500-150)

값(만원)

350

항목

비용 발생액

값(만원)

400

항목

이번 기간 미지급금 증가분

값(만원)

100

항목

비용 현금지급액(400-100)

값(만원)

300

항목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50+350-300$)

값(만원)

100

항목

실제 종료 현금잔액(통장 확인)

값(만원)

100

항목

대사차이(실제-계산상)

값(만원)

0

- 판정: 계산 가능 — 대사차이 0, 기록과 실제 잔액이 일치합니다. 이 사례에는 환불·수수료·선수금·대출 등 다른 차이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확인할 것: 매출 발생액(500)을 그대로 외부 현금유입에 넣지 않고, 미수금 증가분(150)을 뺀 현금수취액(350)만 넣었는지 — 시점 오분류(실제보다 크게 잡힘) 방지 규칙('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이 정확히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를 바꾸는 질문: 이 미수금 150만원은 다음 분석기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 대안 설명: 이 미수금이 실제로는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사표는 회수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합성 사례 B — 대출 유입으로 실제 현금잔액이 늘어난 경우

아래 숫자도 설명용 합성 사례이며, 실존 사업자·고객의 자료가 아니고 실제 상담 사례도 아닙니다. 공식 평균값도 아니며, 다른 사업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표 6. 합성 사례 B — 입력값과 계산

항목 시작 현금잔액
값(만원) 100
항목 영업 관련 외부 유입
값(만원) 300
항목 영업 관련 외부 유출
값(만원) 350
항목 영업 관련 순유입(300-350)
값(만원) -50

항목

차입금 유입

값(만원)

500

항목

대출원금 상환

값(만원)

0

항목

이자 지급

값(만원)

20

항목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100-50+500-20$)

값(만원)

530

항목

실제 종료 현금잔액(통장 확인)

값(만원)

530

항목

대사차이(실제-계산상)

값(만원)

0

항목

전체 현금잔액 증가(530-100)

값(만원)

430

- 판정: 계산 가능 — 대사차이 0.
- 확인할 것: 영업 관련 순유입은 -50만원으로 순유출 상태인데, 전체 현금잔액은 +430만원 늘었습니다. 차입금 유입(500)을 매출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대출·사업주 투입·인출의 분리' 절).
- 결과를 바꾸는 질문: 이 차입금은 상환 계획이 있는가? 다음 분석기간에는 원금 상환 유출이 잡히는가?
-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전체 현금잔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영업 관련 현금이 순유출 상태였고, 자금조달로 잔액이 늘었을 뿐입니다. 이 순유출은 현금 기준으로 본 것이며, 회계상 손익(이익·손실)을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 대안 설명: 영업 관련 현금 순유출이 일시적인 계절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한계' 절의 계절성 설명 참고).

합성 사례 C — 계좌 혼용으로 일부만 확인 되는 경우

아래 상황도 설명용 합성 사례이며, 실존 사업자·고객의 자료가 아니고 실제 상담 사례도 아닙니다. 공식 평균값도 아니며, 다른 사업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한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1개와 개인 계좌 1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시작·종료 잔액과 이번 기간 입출금은 전부 확인됩니다. 개인 계좌에는 이번 기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입금이 몇 건 섞여 있는데, 사업자가 통장 내역을 다시 살펴본 결과 그중 사업 관련 입금 3건(금액 합계만 확인됨)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의 해당 기간 시작·종료 잔액

과 전체 입출금은 대사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판정: 제한적 계산 — 사업용 계좌 A만 독립적으로 대사합니다. A의 시작·종료 잔액과 기간 중 전체 입출금이 확인되므로 A 범위의 대사는 가능하고, 결과는 '사업용 계좌 A의 대사 결과'로만 표시합니다.
- 개인 계좌 B의 사업 관련 입금 3건은 A의 대사에 더하지 않고 '범위 밖 별도 확인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B의 시작·종료 잔액과 전체 입출금이 없으면 A+B의 대사차이도, '사업 전체 현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바로 아래 '계좌 범위가 다를 때' 절의 표 9).
- B를 포함해 계산하려면 B의 기간 양끝 잔액과 그 기간 전체 입출금(사업과 무관한 거래 포함)을 A와 같은 기간·같은 범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도 B에 개인 돈이 섞여 있으므로 합산 잔액을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읽지 않습니다.
- 억지로 대사차이를 0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입력 수치를 두지 않았고, B에 사업 관련 거래가 더 있을 가능성도 남겨 둡니다.

- 만약 A 자체의 시작·종료 잔액이나 기간 중 입출금 일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또는 한 계좌 안에서 사업과 개인 거래를 구분할 수 없고 영향 범위도 모른다면 제한적 계산이 아니라 계산 불완전입니다. 두 판정의 경계는 '대사 범위로 잡은 계좌의 양끝 잔액과 전체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사차이가 0이어도 남는 한계 — 같은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함께 빠진 경우

대사차이가 0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금액의 입금과 출금을 둘 다 빠뜨리면 순변화가 0이어서 계산상 종료 잔액이 그대로 실제 잔액과 일치합니다. 아래는 설명용 가정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표 7. 입금·출금 누락 예(만원)

항목
시작 잔액
내 기록
100
은행 원자료
100
차이
0

항목
기간 중 입금 합계
내 기록
300
은행 원자료
350
차이
-50(입금 한 건 누락)

항목
기간 중 출금 합계
내 기록
250
은행 원자료
300
차이
-50(출금 한 건 누락)

항목 종료 잔액(계산상 / 실제)
내 기록 150 / 150
은행 원자료 150
차이 0 — 대사차이 0

입금 50과 출금 50이 함께 빠졌는데도 $100 + 300 - 250 = 150$ 이 실제 종료 잔액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잘못 분류한 두 항목이 서로 상쇄되는 경우'와는 다른 한계입니다. 분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빠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입금과 출금을 따로 원자료와 대조합니다.

1. 기록한 입금 합계를 같은 기간·같은 계좌 범위의 은행 입금 총액과 따로 비교합니다.
2. 기록한 출금 합계를 같은 기간·같은 계좌 범위의 은행 출금 총액과 따로 비교합니다.
3. 두 합계 중 하나라도 다르면 어느 쪽에 어떤 거래가 빠졌는지 거래 단위로 찾습니다. 행별 대응이 가능하면 입금 거래와 출금 거래를 각각 연결해 봅니다.

4. 거래 건수가 같은지는 보조 확인일 뿐이며, 금액과 거래 대응을 확인한 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5. 이 대조는 사업자 본인이 내부 환경에서 합니다. 거래내역 원본이나 계좌번호를 외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금 합계와 출금 합계가 각각 은행 내역과 맞아도 분류 오류와 기록 중복은 남을 수 있으므로, '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의 점검과 함께 사용합니다. 결과를 기록할 때는 '대사차이 0'과 '입금·출금 합계를 각각 대조했는지'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취소 — 판매 기록의 정정과 실제 현금 이동 구분

환불이나 취소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록이 얹힙니다. 판매 기록을 고치는 일, 플랫폼 정산명세에서 환불액을 차감하는 일, 그리고 은행에서 실제로 입금·출금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통장 대사에는 은행에서 실제로 발생한 입금과 출금을 각각 한 번만 반영하고, 판매 기록의 정정액과 정산명세의 차감액은 그 입출금이 왜 그 금

액인지 설명하는 자료로 씁니다. 아래는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설명용 사례이며 단위는 만원입니다.

표 8. 환불·취소 반영 방식(만원)

상황 입금 100을 받은 뒤 같은 기간에 20을 계좌에서 환불
판매 기록·정산명세 판매 기록을 80으로 정정할 수 있음
은행에서 실제 발생한 입출금 입금 100, 출금 20
잔액 대사에 반영할 것 입금 100과 출금 20을 각각 한 번씩 반영(순변화 +80). 정정액 20을 출금에 한 번 더 넣지 않음

상황 돈이 들어오기 전에 판매가 취소됨
판매 기록·정산명세 판매 기록 취소
은행에서 실제 발생한 입출금 입금·출금 없음
잔액 대사에 반영할 것 현금 이동이 없으므로 반영할 것이 없음. 가상의 환불 출금을 만들지 않음

상황

플랫폼 정산명세에서 환불 20을 차감하고 80만 정산됨

판매 기록·정산명세

판매 100, 정산명세: 환불 20 차감·정산 80

은행에서 실제 발생한 입출금

입금 80(별도 환불 출금 없음)

잔액 대사에 반영할 것

입금 80만 반영. 정산에서 이미 차감된 20을 출금으로 다시 넣지 않음

상황

이전 기간에 받은 100 중 20을 이번 기간에 환불 (시작 잔액 150)

판매 기록·정산명세

이전 기간 판매 기록의 정정

은행에서 실제 발생한 입출금

이번 기간 출금 20

잔액 대사에 반영할 것

이번 기간에 출금 20만 반영해 종료 잔액 130. 이전 기간 입금을 이번 기간에 다시 더하지 않음

환불의 차감 시점과 방식은 플랫폼과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위 표의 어느 방식이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정산명세와 은행 입출금 내역을 함께 보고, 같은 환불이 두 곳에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범위가 다를 때 — 거래 일부만 더하면 잔액이 맞지 않는 예

이 절의 숫자는 앞의 합성 사례 C와 별개의 가정입니다. 사업용 계좌 A와 개인 계좌 B가 있고 두 계좌 사이의 이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설명용, 만원).

표 9. 계좌 범위별 잔액(만원)

범위 사업용 계좌 A 전체
시작 잔액 100
입금 300
출금 250
종료 잔액 150

범위
개인 계좌 B 전체
시작 잔액
200
입금
60(사업 관련 입금)
출금
30(개인 지출)
종료 잔액
230

범위
A와 B 전체 합산
시작 잔액
300
입금
360
출금
280
종료 잔액
380

A의 잔액을 확인하면서 B의 사업 관련 입금 60만 더하면 $100 + 300 + 60 - 250 = 210$ 이 되어 A의 실제 종료 잔액 150과 맞지 않습니다. 일부 거래만 범위에 넣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잔액

이 따로 없어서 통장 잔액과 곧바로 맞춰 볼 수 없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대사하려면 B의 시작·종료 잔액과 기간 중 전체 입출금까지 포함해야 하며($300 + 360 - 280 = 380$), 이때도 B에 개인 돈이 섞여 있으므로 380 전부를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읽지 않습니다. 합성 사례 C에서 개인 계좌의 사업 관련 입금 3건을 A의 대사에 더하지 않고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대안 설명과 실패 시나리오

- 대사차이가 0이어도 분류가 잘못될 수 있는가?
—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항목을 잘못 분류해도 총액은 우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금액 일치와 항목별 분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대사차이의 부호와 해석' 절).
- 대사차이가 0이면 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됐다는 뜻인가? — 아닙니다. 같은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함께 빠져도 0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입금 합계와 출금 합계를 각각 은행 내역과 대조합니다('대사차이가 0이어도 남는 한계' 절 참고).

- 모든 입출금을 기록해도 분석 범위 밖 계좌가 있으면 결과가 왜곡되는가? — 그렇습니다. 결과에는 항상 분석 범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카드 미정산액을 현금유입으로 먼저 넣으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을 이미 들어온 것으로 계산해, 계산상 잔액이 실제보다 커집니다('카드매출 정산 처리'·'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
- 대출금·사업주 투입금을 매출로 보면 어떤 잘못된 결론이 생기는가? —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합성 사례 B).
- 개인 계좌에 사업 관련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 사업용 계좌의 양끝 잔액과 전체 입출금이 확인되면 그 계좌만 대사하고(제한적 계산) 개인 계좌의 거래는 별도 확인 항목으로 둡니다. 개인 계좌를 포함하려면 그 계좌의 양끝 잔액과 전체 입출금이 필요합니다(합성 사례 C, 표 9).
- 이 대사표만으로 수익성·지급능력·폐업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가? — 아니오, 이 글은 그렇게 판정하지 않습니다('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절).

- 대사차이가 있다고 횡령·누락을 단정할 수 있는가? — 아니오. 범위·시점 차이, 미반영 수수료·세금·현금거래·계좌 누락을 먼저 확인합니다('대사차이의 부호와 해석' 절).
- 월별 대사가 맞아도 미래 자금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가? — 아니오. 이 표는 과거·현재 시점의 기록과 실제 잔액이 맞는지만 확인합니다('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절).
- 현금흐름 문제 때문에 폐업하는지, 매출이 늘면 현금도 항상 늘어나는지, 비용이 줄면 현금도 바로 늘어나는지 — 이런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 절).

결과 해석 질문

- 대사차이가 0이 아니라면, 어떤 항목을 놓쳤을 가능성이 가장 큰가?(내부이체, 카드 미정산, 현금거래, 계좌 범위 순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미수금·미지급금 중 다음 분석기간 안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 전체 현금잔액 증감 중 영업 관련 부분과 자금 조달·소유자 자금 이동 부분을 구분해서 봤을 때, 각각 어떤 방향인가?
- 이번 분석기간에 '제한적 계산' 또는 '계산 불완전'으로 남은 항목이 있다면, 다음 분석기간에는 어떤 집계값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

한계

- 이 글의 모든 정의와 계산식은 GAON-LAB이 정리한 운영상 정의이며, 법정 회계기준의 공식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조작적 정의'·'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 절).
- 간편장부 '수입(매출)'의 부가세 기재 방식은 과세유형별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이 사용자의 선택 사항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사표 안의 입력 기준만 분석기간 전체에 하나로 통일하며, 세무 장부의 기재 기준과는 별개입니다('부가세·세금 처리 경계' 절 참고).
- 카드·플랫폼 정산에 걸리는 보편적인 일수를 확인하지 못해, 고정값을 가정하지 않고 사용자 입력값만 씁니다('카드매출 정산 처리' 절).

- 이 계산은 사업자가 입력한 집계값의 정확성에 의존합니다. 입력값 자체가 부정확하면 대사차이가 0이어도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Research 페이지에는 금융자료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계산은 사업자가 자신의 내부 환경(직접 만든 표나 계산기 등)에서 이 글의 정의·계산식·규칙을 참고해 집계값만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업종·규모의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소상공인·1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업종별 계절성이나 결제 구조 차이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계절성이 큰 업종은 여러 분석기간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재현 방법

이 글의 계산은 '기본 대사식' 절의 식과 '이중계상·오분류 방지 규칙' 절의 규칙만 있으면 누구나 손으로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석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 없이 준비할 집계값' 절의 집계값을 준비한 뒤, 매출·비용은 발생

액이 아니라 실제 수취·지급액으로 바뀌어서 더하고 빼면 계산상 종료 현금잔액이 나옵니다. 그 값을 실제 통장 잔액과 비교하면 대차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성 사례 A·B·C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 결과입니다.

다음 행동과 서비스 연결

1. 먼저 표 1(조작적 정의)과 '개인정보 없이 준비할 집계값' 절을 참고해 이번 달 또는 최근 3개월 집계값을 정리해봅니다.
2. 무료 자기점검이 필요하면 경영 건강진단을 이용합니다.
3. 고객·거래 원본이 아닌 집계값으로 더 깊이 점검하고 싶다면 소상공인·1인사업자 진단을 검토합니다.
4. 상담이 필요하면 문의를 남깁니다. 초기 문의에는 통장 사본·거래내역 원본·개인정보를 첨부하지 않으며, 제출 가능한 집계값과 작업 범위를 먼저 협의한 뒤 상담에서 구체적인 범위·일정·견적·산출물을 정합니다. 자금 부족 예방이나 매출·수익성 개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석의 한계와 참고자료

이 글은 GAON-LAB이 네 차례에 걸쳐 조사·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간편장부·사업용계좌 안내 외의 여러 자료(회계기준 조문, 폐업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 등)를 검토했으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 글의 핵심 계산·주장에 인과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근거에서 제외했습니다('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 절에 요약).

이 글의 계산 모형과 세 가지 합성 사례는 재무·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 회계 처리 방식을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기록항목 8종, 거래 발생일 기준·과세유형별 기재 안내(페이지 발행·수정일 미표시, 2026.10.8. 본문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70&mi=2231>

국세청, 「사업용계좌 관련 안내」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의 적용 대상(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81>